

## 미니테스트 제 9 회

문 1.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2020행언나-25

19세기 후반 독일의 복지 제도를 주도한 비스마르크는 보수파였다. 그는 노령연금과 의료보험 정책을 통해 근대 유럽 복지 제도의 기반을 조성하였는데 이 정책의 일차적 목표는 당시 노동자를 대변하는 사회주의자들을 견제하면서 독일 노동자들이 미국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었다. 그의 복지 정책은 노동자뿐 아니라 노인과 약자 등 사회의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얻을 수 있었지만, 이러한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각 정파들 간에 논쟁과 갈등이 발생했다. 복지 제도는 모든 국민에게 그들의 공과와는 관계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최소치를 보장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선 지속적인 재원이 필요했다. 그런데 그 재원을 확보하고자 국가가 세금과 같은 방법을 동원할 경우 그 비용을 강제로 부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불만은 말할 것도 없고, 실제 제공되는 복지 수준이 기대치와 다를 경우 그 수혜자들로부터도 불만을 살 우려가 있었다.

공동체적 가치를 중요시해 온 독일의 사회주의자들이나 보수주의자들은 복지 정책을 입안하고 그 집행과 관련된 각종 조세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적극적이었다. 이들은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기 위한 재원을 국가가 직접 나서서 마련하는 데 찬성했다. 반면 개인주의에 기초하여 외부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권리와 자유를 최상의 가치로 간주하는 독일 자유주의자들은 여기에 소극적이었다. 이 자유주의자들은 모두를 위한 기본적인 복지보다는 개인의 사유재산권이나 절차상의 공정성을 강조하였다. 이들은 장애인이나 가난한 이들에 대한 복지를 구휼 정책이라고 간주해 찬성하지 않았다. 이들에 따르면 누군가가 선천적인 장애나 사고로 인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내가 그 사람을 도와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이 원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국가가 강제로 개인에게 세금을 거두고자 한다면 이는 자유의 침해이자 강요된 노동이 될 수 있었다. 물론 독일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고 적극 권장하는 입장을 취했다. 19세기 후반 독일의 보수파를 통해 도입된 복지 정책들은 이후 유럽 각국의 복지 제도 확립에 영향을 미쳤다. 그렇지만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자들과의 갈등들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 ① 독일 자유주의자들은 구휼 정책에는 반대했지만 개인적 자선 활동에는 찬성하였다.
- ② 독일 보수주의자들은 복지 정책에 드는 재원을 마련하면서 그 부담을 특정 계층에게 전가하였다. → 옳
- ③ 독일 보수주의자들이 집권한 당시 독일 국민의 노동 강도는 높아졌고 개인의 자율성은 침해되었다. → 옳
- ④ 공동체적 가치를 강조하는 사회주의적 전통이 확립될수록 복지 정책에 대한 독일 국민들의 불만은 완화되었다. → 옳
- ⑤ 독일 사회주의자들이 제안한 노동자를 위한 사회 보장 정책은 독일 보수주의자들에 의해 전 국민에게로 확대되었다.

→ 복지제도는 보수파가 제안

문 2. 다음 글의 ㉠에 해당하는 사례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2019행언가-09

‘부재 인과’, 즉 사건의 부재가 다른 사건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일상 속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인과 관계가 원인과 결과 간에 성립하는 일종의 의존 관계로 분석될 수 있다면 부재 인과는 인과 관계의 한 유형을 표현한다. 예를 들어, 경수가 물을 주었더라면 화초가 말라죽지 않았을 것이므로 ‘경수가 물을 줌’이라는 사건이 부재하는 것과 ‘화초가 말라죽음’이라는 사건이 발생하는 것 사이에는 의존 관계가 성립한다. 인과 관계를 이런 의존 관계로 이해할 경우 화초가 말라죽은 것의 원인은 경수가 물을 주지 않은 것이며 이는 상식적 판단과 일치한다. 하지만 화초가 말라죽은 것은 단지 경수가 물을 주지 않은 것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의존 관계로 인과 관계를 이해하려는 견해에 따르면, 경수의 화초와 아무 상관없는 영희가 그 화초에 물을 주었더라도 경수의 화초는 말라죽지 않았을 것이므로 영희가 물을 주지 않은 것 역시 그 화초가 말라죽은 사건의 원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경수가 물을 주지 않은 것은 그가 키우던 화초가 말라죽은 사건의 원인이지만, 영희가 물을 주지 않은 것은 그 화초가 말라죽은 사건의 원인이 아니다. 인과 관계를 의존 관계로 파악해 부재 인과를 인과의 한 유형으로 받아들이면, 원인이 아닌 수많은 부재마저도 원인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 문제가 생겨난다.

<보 기>

- ㉠. 어제 영지는 늘 타고 다니던 기차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지각을 했다. 그 기차가 고장이 나지 않았다면 영지는 지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영지가 새벽 3시에 일어나 직장에 걸어갔더라면 지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어제 영지가 새벽 3시에 일어나 직장에 걸어가지 않은 것이 그가 지각한 원인이라고 보아야 한다.
- ㉡. 영수가 야구공을 던져서 유리창이 깨졌다. 영수가 야구공을 던지지 않았더라면 그 유리창이 깨지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 유리창을 향해 야구공을 던지지 않은 사람들은 많다. 그러므로 그 많은 사람 각각이 야구공을 던지지 않은 것을 유리창이 깨진 사건의 원인이라고 보아야 한다.
- ㉢. 햇빛을 차단하자 화분의 식물이 시들어 죽었다. 하지만 햇빛을 과다하게 쬌거나 지속적으로 쬌었다면 화분의 식물은 역시 시들어 죽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햇빛을 쬌는 것은 식물의 성장 원인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 ㉠ ㉡ ㉢  
 ㉠ ㉡ ㉢  
 ㉠ ㉡ ㉢

→ 직접적 원인 이외의 부재

→ 부재 인과와 무관함  
 (= 사건의 부재가 다른 사건의 원인 x)

문 3. 다음 논쟁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0행언나-14

갑: 진실을 말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겠지만, 그런 설득은 엉망인 결과로 이어지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을: 사람들을 설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정의나 훌륭함에 대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자신이 말하는 바를 사람들이 정의롭고 훌륭한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끔 설득하는 이야기 기술입니다. 설득은 진실을 말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취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갑: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지요. 제가 ‘말을 구해 적들을 막아야 한다.’고 당신을 설득하려는 상황을 생각해봅시다. 단, 당신이 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정보는 가축 중 말의 귀가 가장 크다는 것뿐이고, 제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합시다. 이럴 때, 제가 당나귀를 말이라고 부르면서, 당나귀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아 당나귀가 적들을 막는데 무척 효과적이라고 당신을 꼬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당신은 설득이 되겠지요. 하지만 당신은 당나귀로 적들을 막아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기술만으로 대중을 설득한다면, 그 설득으로부터 야기된 결과는 엉망이 될 것입니다.

을: 제 말을 너무 심하게 비난하는군요. 제가 말한 것은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이야기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라도 그런 기술이

없다면 설득을 해낼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것뿐입니다.

갑: 물론, 진실을 말한다고 해서 설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서 대중을 설득하는 이야기 기술만 습득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① 갑과 을은 진실을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설득에 실패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② 갑과 을은 이야기 기술만으로 사람들을 설득하는 경우가 가능하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 옳지 않다

③ 갑과 을은 진실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이야기 기술을 습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 옳지 않다

④ 갑은 이야기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설득에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긍정하지만, 을은 부정한다. → 을이 부정하고 불만을 대속

⑤ 갑은 진실하지 않은 것을 믿게끔 설득하는 것으로부터 야기된 결과가 나쁠 수 있다는 것을 긍정하지만, 을은 부정한다. → 을이 부정하고 불만을 대속

문 4. 다음 <표>는 2014 ~ 2018년 A기업의 직군별 사원수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면?

2020행자나-24

<표> 2014 ~ 2018년 A기업의 직군별 사원수 현황  
(단위: 명)

연도 \ 직군	영업직	생산직	사무직
2018	169 <	171 (105)	66 <
2017	174 <	189 (121)	68 <
2016	137 <	184 (107)	77 <
2015	+2 ↗ 136 <	177 (93) ↗ -14	84 ↗ -1
2014	134 <	192 (107)	85 <

※ 사원은 영업직, 생산직, 사무직으로만 구분됨.

- <보 기>
- ㄱ. 전체 사원수는 매년 증가한다. → 2015년에 전년 대비 감소
  - ㄴ. 영업직 사원수는 생산직과 사무직 사원수의 합보다 매년 적다.
  - ㄷ. 생산직 사원의 비중이 30% 미만인 해는 전체 사원수가 가장 적은 해와 같다. 2015년 = 2016년
  - ㄹ. 영업직 사원의 비중은 매년 증가한다. → 2016년에는 전년 대비 감소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합계  
340  
363  
321  
313 × 30% = 93.9  
326

2015년 1%↓ 2016년  
ㄷ.  $\frac{136}{313} > \frac{137}{321}$   
1%↑



문 5. 다음 <표>는 우리나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9행자가-15

<표 1> 2011 ~ 2015년 전국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현황 (단위: 천 가구, 십억 원)

구분	근로장려금만 신청		자녀장려금만 신청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신청			
	가구 수	금액	가구 수	금액	가구 수	금액		
						근로	자녀	소계
연도	a		b		c		자	
2011	930	747	1,210	864	752	712	762	1,474
2012	1,020	719	1,384	893	692	882	765	1,647
2013	1,060	967	1,302	992	769	803	723	1,526
2014	1,658	1,419	1,403	975	750	715	572	1,287
2015	1,695	1,155	1,114	775	608	599	451	1,0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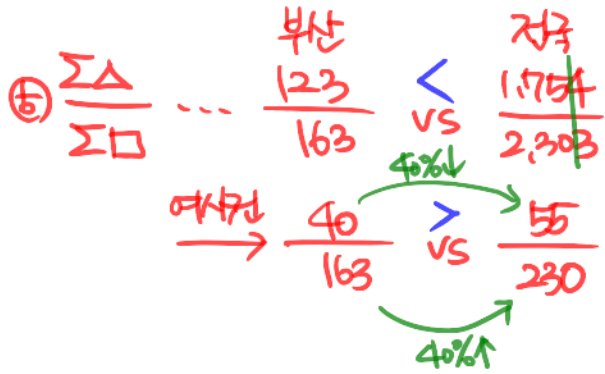
※ 1) 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으로만 구성됨.  
2) 단일 연도에 같은 종류의 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가구는 없음.

Da: 지속적인 증가 → b, c 감소 체크.

<표 2> 2015년 지역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현황 (단위: 천 가구, 십억 원)

구분	근로장려금만 신청		자녀장려금만 신청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신청		
	가구 수	금액	가구 수	금액	가구 수	금액	
지역	보	자			(보	자)	자녀
서울	247	174	119	95	83	86	57
인천	105	72	79	52	40	39	30
경기	344	261	282	188	144	144	106
강원	71	44	42	29	23	23	17
대전	58	35	38	26	21	20	16
충북	59	36	41	29	20	20	16
충남	70	43	46	33	24	23	19
세종	4	3	4	2	2	2	1
광주	62	39	43	31	24	23	18
전북	91	59	54	40	31	30	25
전남	93	58	51	38	29	28	24
대구	93	64	59	39	33	32	23
경북	113	75	68	47	36	34	27
부산	126	88	70	45	37	35	26
울산	26	15	20	13	10	10	7
경남	109	74	79	54	40	39	30
제주	24	15	19	14	11	11	9

- ①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의 수는 (2011 ~ 2014년 동안) 매년 증가 하였다.  $a+b+c$
- ②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신청한 가구의 가구당 장려금 총 신청 금액이 가장 큰 연도는 2012년이다. (유일하게 2초과)
- ③ 2015년 자녀장려금만 신청한 가구 중 경기 지역 가구가 차지 하는 비중은 20 % 이상이다.  $\frac{282}{1,114} > 20\%$  1에 가까움
- ④ 2015년 각 지역에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신청한 가구의 가구당 근로장려금 신청 금액은 < 근로장려금만 신청한 가구의 가구당 근로장려금 신청 금액보다 크다. 1보다 많이 작음
- ⑤ 2015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의 가구당 근로장려금 신청 금액은 부산이 전국보다 크다.



프라임 PSAT 온라인 스테디 미니테스트 제 9 회

문 6. 다음 <표>는 ‘갑’대학교 정보공학과 학생 A ~ I의 3개 교과목 점수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총 9명) 2020행자나-32

<표> 학생 A ~ I의 3개 교과목 점수 (단위: 점)

학생 \ 교과목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평균
A	$x=61.0$	85.0	77.0	74.3
B	88.0	90.0	92.0 大	90.0
C	71.0	71.0	( 71.0 )	71.0
D	28.0	30~65	65.0	50.0
E	39.0	63.0	82.0	61.3
F	52.4↓ ( )	73.0	74.0	( )
G	35.0	( 50.0 )	50.0 小	45.0
H	40.0	( 50.0 )	70.0	53.3
I	65.0	61.0	( 82.4 )	70.3
평균	52.4	66.7	74.0	( )
중앙값	45.0	63.0	74.0	64.0

※ 중앙값은 학생 A ~ I의 성적을 크기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위치한 값임. 5등

- <보 기>
- ㄱ. 각 교과목에서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은 학생은 각각 5명 이상이다.
  - ㄴ. 교과목별로 점수 상위 2명에게 1등급을 부여할 때, 1등급을 받은 교과목 수가 1개 이상인 학생은 4명이다.
  - ㄷ. 학생 D의 빅데이터 교과목과 사물인터넷 교과목의 점수가 서로 바뀐다면, 빅데이터 교과목 평균은 높아진다.
  - ㄹ. 최고점수와 최저점수의 차이가 가장 작은 교과목은 사물인터넷이다. → 빅데이터가 40점으로 더 낮음.

- ① ㄱ, ㄴ (42점)
- ② ㄴ, ㄷ
-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
- ⑤ ㄱ, ㄷ, ㄹ

7. 중앙값 ≤ 평균 → 5 ~ 9등 ≤ 평균  
총 5명

$$L. x + 85 + 77 = 74 \times 3 + 1 = 223 \therefore x = 61$$

→ A, B, C, I

→ 빅데이터보다 사물인터넷 점수가 더 높으므로 옳은 설명

문 7.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2019행상가-01

- 제00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①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전자이미지서명, 전자문자서명 및 행정 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②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전자문서의 경우는 수신자가 지정한 전자적 시스템에 입력되는 것을 말한다)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②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고문서는 그 문서에서 효력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면 그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날부터 5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 제00조(문서 작성의 일반원칙) ① 문서는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그 밖의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로 쓴다.
- ④ ② 문서의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일반화되지 않은 약어와 전문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여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 ⑤ ③ 문서에는 음성정보나 영상정보 등을 수록할 수 있고 연계된 바코드 등을 표기할 수 있다.
- ④ 문서에 쓰는 숫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아라비아 숫자를 쓴다.
- ① ⑤ 문서에 쓰는 날짜는 숫자로 표기하되, 연·월·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온점(.)을 찍어 표시하며, 시·분은 24시각제에 따라 숫자로 표기하되, 시·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사이에 쌍점(:)을 찍어 구분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 ① 문서에 '2018년 7월 18일 오후 11시 30분'을 표기해야 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18. 7. 18. 23:30'으로 표기한다.
- ② 2018년 9월 7일 공고된 문서에 효력발생 시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문서의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 5일 후(9/12) 효력 발생
- ③ 전자문서의 경우 해당 수신자가 지정한 전자적 시스템에 도달한 문서를 확인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전자적 시스템에 입력되기만 해도 효력 발생
- ④ 문서 작성 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일반화되지 않은 약어와 전문용어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사용을 피하여 작성해야 함
- ⑤ 연계된 바코드는 문서에 함께 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영상 파일로 처리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 연계된 바코드 표기 불가

문 8.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19행상가-10

A부족과 B부족은 한쪽 손의 손모양으로 손가락 셈법 (지산법)을 사용하여 셈을 한다.

- A부족의 손가락 셈법에 따르면, 손모양을 보아 손바닥이 보이면 펴져 있는 손가락 개수만큼 더하고, 손등이 보이면 펴져 있는 손가락 개수만큼을 뺀다.
- B부족의 손가락 셈법에 따르면, 손모양을 보아 엄지가 펴져 있으면 엄지를 제외하고 펴져 있는 손가락 개수만큼 더하고, 엄지가 접혀 있으면 펴져 있는 손가락 개수만큼 뺀다. → 한번에 최대 4까지만 계산함

<보 기>

ㄱ. 손바닥이 보이는 채로, 손가락 다섯 개가 세 번 모두 펴져 있으면, 셈의 합은 A부족이 15이고 B부족은 12일 것이다.

ㄴ. B부족의 셈법에 따르면, 세 번 다 엄지만이 펴져 있는 것의 셈의 합과 세 번 다 주먹이 쥐어져 있는 것의 셈의 합은 동일하다.

ㄷ. 손바닥이 보이는 채로, 첫 번째는 엄지·검지·중지만이 펴져 있고, 두 번째는 엄지가 접혀 있고 검지·중지만 펴져 있고, 세 번째는 다른 손가락은 접혀 있고 엄지만 펴져 있다. 이 경우 셈의 합은 A부족이 6이고 B부족은 3일 것이다.

ㄹ. 세 번 동안 손가락이 몇 개씩 펴져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세 번 내내 엄지는 꼭 펴져 있었다. 이를 A부족, B부족 각각의 셈법에 따라 셈을 하였을 때, 셈의 합이 똑같이 9가 나올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ㄱ, ㄷ, ㄹ

$$\begin{aligned} \text{ㄱ. } A: 5+5+5 &= 15 \\ B: 4+4+4 &= 12 \end{aligned}$$

$$0+0+0=0$$

$$0-0-0=0$$

$$\text{ㄷ. } A: 3+2+1=6$$

$$B: 2-2+0=0$$

$$\text{ㄹ. } B: 4+4+1(\text{등})=9$$

$$A: 5+5-2=8$$

$$B: 4+3+2(\text{등})=9$$

$$A: 5+4-3=6$$

$$B: 3+3+3(\text{등})=9$$

$$A: 4+4-4=4$$

어떤 경우에도  
A부족 셈법으로는  
9가 될 수 없음



문 9.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19행상가-14

- 甲과 乙은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각자 한 번에 하나의 민원만 접수한다.
- 민원은 ‘X민원’과 ‘Y민원’ 중 하나이고, 민원을 접수한 직원은 ‘X민원’ 접수 시 기분이 좋아져 감정도가 10 상승하지만 ‘Y민원’ 접수 시 기분이 나빠져 감정도가 20 하락한다.
- 甲과 乙은 오늘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했다.
- 09:00에 甲과 乙의 감정도는 100이다.
- 매시 정각 甲과 乙의 감정도는 5씩 상승한다. (단, 09:00, 13:00, 18:00 제외)
- 13:00에는 甲과 乙의 감정도가 100으로 초기화된다.
- 18:00가 되었을 때, 감정도가 50 미만인 직원에게는 1일의 월차를 부여한다.
- 甲과 乙이 오늘 접수한 각각의 민원은 아래 <민원 등록 대장>에 모두 기록됐다.

<민원 등록 대장>		
접수 시각	접수한 직원	민원 종류
09:30	甲	Y민원 -20
10:00	乙 △	+10 X민원
11:40	甲	Y민원 -20
13:20	乙 △	Y민원 -20
14:10	甲	Y민원 -20
14:20	乙 △	Y민원 -20
15:10	甲	㉠
16:10	乙 △	Y민원 -20
16:50	乙 △	㉡
17:00	甲	+10 X민원
17:40	乙 △	+10 X민원

10:00  
11:00  
12:00  
14:00  
15:00  
16:00  
17:00

초기화 (甲=乙=100)

- <보 기>—
- ㉠ ㉠, ㉡에 상관없이 18:00에 甲의 감정도는 乙의 감정도보다 높다.
  - ㉡ ㉡이 ‘Y민원’이라면, 乙은 1일의 월차를 부여받는다.
  - ㉢ 12:30에 乙의 감정도는 125이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 甲:  $-20 + ㉠ + 10 = ㉠ - 10 + \alpha \geq -30$  (×)

㉡.  $-20 \times 3 + ㉡ + 10 = ㉡ - 50 + \alpha \leq -40$

㉢.  $-20 - 50 + 5 \times 4 = -50 \therefore Z = 100 - 50 = 50$

㉣.  $Z = 100 + 10 + 5 \times 3 = 125$

문 10. 다음 <상황>과 <자기소개>를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2020행상나-34

<상 황>

- 5명의 직장인(甲 ~ 戊)이 커플 매칭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 남성이 3명이고 여성이 2명이다.
  - 5명의 나이는 34세, 32세, 30세, 28세, 26세이다.
  - 5명의 직업은 의사, 간호사, TV드라마감독, 라디오작가, 요리사이다.
  - 의사와 간호사는 성별이 같다.
  - 라디오작가는 요리사와 매칭된다.
  - 남성과 여성의 평균 나이는 같다.
  - 한 사람당 한 명의 이성과 매칭이 가능하다.

<자기소개>

甲: 안녕하세요. 저는 32세이고 의료 관련 일을 합니다.  
乙: 저는 방송업계에서 일하는 남성입니다.  
丙: 저는 20대 남성입니다.  
丁: 반갑습니다. 저는 방송업계에서 일하는 여성입니다.  
戊: 제가 이 중 막내네요. 저는 요리사입니다.

- ① TV드라마감독은 乙보다 네 살이 많다.
- ② 의사와 간호사 나이의 평균은 30세이다. 甲(32세) & 丙(28세)
- ③ 요리사와 라디오작가는 네 살 차이이다. 26세 & 30세
- ④ 甲의 나이는 방송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 나이의 평균과 같다. 20세 & 34세
- ⑤ 丁은 의료계에서 일하는 두 사람 중 나이가 적은 사람보다 두 살 많다. 34세 & 28세

	나이	직업	성별
甲	32		남
乙	30	라	남
丙	26/28		남
丁	34	TV	여
戊	26	요리사	여